

## 노동법

###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(행정)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사무용품을 제작·판매하는 A 회사는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. A 회사는 근로자들을 생산직과 사무관리직의 2개 직종으로 구분하여 직종별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다. 2000. 1. 1. 甲은 생산직으로 그리고 乙은 사무관리직으로 각각 입사하였다. 2019. 6. 15. 기준 A 회사의 직원 중 생산직은 70명이고 사무관리직은 30명이다. A 회사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만 존재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없다. B 노동조합의 규약에서는 조합원 자격을 A 회사에 재직 중인 생산직 직원과 사무관리직 직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, 2019. 6. 15. 기준 생산직 직원 중 60명과 사무관리직 직원 중 10명이 B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다. A 회사는 2019. 6. 15. B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 ‘생산직 인사규정’과 ‘사무관리직 인사규정’을 각각 개정하였다. 이 개정에 따라 생산직의 정년은 62세에서 60세로, 사무관리직의 정년은 65세에서 62세로 각각 단축되어 2020. 1. 1.부터 적용되었다. 생산직 직원 甲과 사무관리직 직원 乙은 각각 2020. 3. 31.과 2020. 4. 30. A 회사로부터 정년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받았다. 甲과 乙은 2019. 6. 15. 개정된 ‘생산직 인사규정’과 ‘사무관리직 인사규정’은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甲과 乙 각각의 주장은 타당한가? (20점)

제 2 문. C 회사는 상시 1,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·판매하는 회사이다. C 회사는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20. 3. 15. D 회사와, C 회사의 여러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조명장치 제작 부문을 D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. 조명장치 제작 부문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해당 영업양도계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.

제10조(고용승계) D 회사는 C 회사 조명장치 제작 부문 근로자들의 고용을 원칙적으로 승계한다. 다만 2019년도 인사고과 및 평가에서 최하위 20%의 점수를 받은 근로자들의 고용은 승계하지 아니한다.

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D 회사는 C 회사의 조명장치 제작 부문을 양수하면서, 2019년도 인사고과 및 평가에서 최하위 20%의 점수를 받은 근로자 丙 등 30명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았다.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丙은 D 회사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. 丙의 주장은 타당한가? (15점)

제 3 문. 외국 국적을 가진 丁 등은 적법한 체류자격 없이 수도권에 소재한 회사들에서 다년간 임금근로자로 일해 왔다. 丁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X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. 해당 행정관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적법한 체류자격과 취업자격이 있어야 한다면서 조합원명부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다. X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요구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서 응하지 않았다. 이에 해당 행정관청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X 노동조합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丁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. 丁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. 丁의 주장은 타당한가? (15점)

##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